

# 노란 봄향기 솔솔... 유채꽃 만발한 남국의 도량

##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 ① 서귀포 약천사

5월은 제주도의 관광 성수기이다. 녹음이 우거지고 들뜬 야생화로 울긋불긋 하다. 천천히 쉬면서 봐야 제주는 더 곱다. 서귀포시 대표동에 위치한 약천사(주지 성원 스님)는 제주도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더욱 따뜻하다.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객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찾아간 도량에는 중국 관광객들로 붐볐다. 많게는 하루 5천여명의 관광객과 참배객들이 몰려드는 약천사는 제주 관광 1천만 시대를 여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관광객 대상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성산일출봉이 36.7%로 1위, 그 다음은 한라산이 12.6%를 차지했다. 약천사도 사찰로는 처음으로 4.8%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종교를 불문하고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약천사가 오늘날 같은 도량으로 거듭난 것은 지난 1981년 고향이 서귀포인 해인 스님이 이곳에 큰 절을 짓겠다는 원력을 세우면서 부터다. 스님은 제주도에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대가람을 짓고자 터를 찾던 중 한라산 영봉이 보이고 앞으로는 태평양을 가슴에 안은 바다가 펼쳐진 현 터에 약천사 불사를 시작했다.

대 가람이 없는 제주지역이기 때문에 웅장한 3층 구조의 대적광전 조감도를 처음 그렸을 때 사람들은 한낱 공상으로 치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인 스님은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하리라 굳게 믿으며, 전국을 다니며 사찰 건립의 원력을 전했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다. 해인 스님이 약천사를 짓기 전에는 1485㎡(450평) 남짓의 절터에 '약수암'이라는 59.4㎡(18평) 규모의 제주 전통 초가집만이 고작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됐고, 절의 규모가 갖춰지자 사명을 약천사(藥川寺)로 짓게 되었다.

지난 1988년 토지가 확보되자 착공에 들어가 1991년 중앙 최대의 법당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3년 큰법당에 비로자나부처님을 봉안하고 불보살을 거행한데 이어 1996년 대웅전 낙성대법회 및 나한전 상량식을 봉행, 수행과 포교가 어우러진 내실 있는 사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는 법당 내 목처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한 후불목각탱화 등이 뛰어난 작품성으로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다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특히 서귀포 앞 바다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대적광전은 단일 법당으로는 중앙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법당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의 웅장

한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금산사 마루전의 3층 구조를 응용해 설계됐다. 외부서 볼 때는 3층이지만 내부의 가운데는 천장까지 트여져 있어 웅장함을 더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셨기 때문에 '대적광전(大寂光殿)'이 된 것이다. 주불로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은 백두산서 가져온 목재로 조성됐으며, 높이가 4.5m나 된다. 좌보처는 약사여래불인데 이는 예로부터 약천사에는 약수물이 흐르는 샘물이 있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질병 치료의 영험이 계속 이어져 많은 중생들이 질병의 고통서 구원되기를 서원하는 의미에서 모셔졌다.

우보처로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을 모시게 된 것은 특별한 연유가 있다. 약천사가 위치한 서귀포(西歸浦)라는 명칭이 서방정토(西方淨土)로 귀의(歸依)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서원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미타불을 모셔서 많은 불자들의 서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 1981년 해인 스님이 원력 불사 시작
- 대적광전은 단일 법당으로 최대 규모
- 2006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
- 2009년 중증 장애시설 '자광원' 개원

화려한 채색으로 500나한의 영험을 더한 오백나한전을 비롯해 약천사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굴법당, 보름날 이곳에 올라서면 바다와 산 등 약천사의 전경이 어우러져 시흥이 절로 나는 범종각과 법고각 등은 제주불교계에서도 으뜸가는 위상을 충분히 갖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약천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1월에는 조계종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내·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도 빠르게 발맞춰 지난 2009년 12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약천사 자광원을 개원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11년 7월 6일 나눔의 산실 약천사 부설 행복나눔 푸드마켓 서귀포시 서흥동에 개원하는 등 명실상부 한 복지도량으로 거듭났다.

서귀포=제주불교 이병철 기사



굴법당 입구에 모셔진 약사여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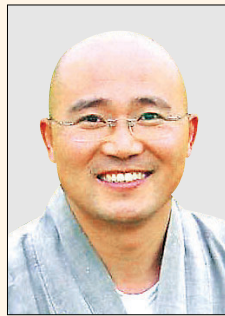
대적광전에 모셔진 나한전



서귀포시에 위치한 약천사 앞마당에는 너울거리는 노란 유채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히 주변 아자수와 어울려 남국의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 "힐링 사찰로 거듭나겠다"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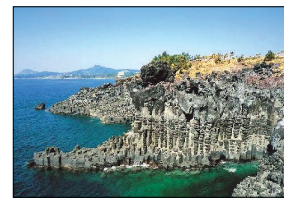
성원 스님은 약천사 8대 주지로 취임하면서 '부처님·사회·자연과 함께 하겠다'고 약천사 운영지표를 발표했다. 부처님과 함께, 사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원 스님은 "늘 부처님 품안에서 신행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이웃 종단, 이웃 종교와 손잡고 서로 도우며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더불어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우리들도 자연으로부터 힐링받는 약천사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각광받고 있다"며 "우리의 전통 불교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주변 가볼만한 곳

▲주상절리=막혔던 가슴이 탁트이도록 시원스레 부서지는 파도,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인 겹봉은 육목포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해안가의 주상절리대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50호다. 아득한 옛날 지각변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주상절리대를 보고 있으면 새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속에 석수장이의 애달픈 사연이라도 금새 실려오는 듯하다. 파도가 심하게 일때는 높이 20m 이상 용솨음 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천혜의 절경으로 인해 테마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명소다.



▲제주중문관광단지=약천사서 차동차로 10여분 거리의 중문관광단지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지난 1978년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일대에 조성된 관광단지다.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신라호텔·롯데호텔 등

숙박시설 7개소와 대형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천제연관광, 여미지식물원, 테디베어뮤지엄, 민겨나말겨나박물관, 퍼시픽랜드 등 위락휴양시설 10여개소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레 8코스=약천사를 지나가는 올레 8코스는 바다에 밀려 내려온 용암이 굳으면서 절경을 빚은 주상절리의 비경을 갖춘 올레 최고의 코스다. 주상절리 돌기둥과 중문해수욕장에 이어지는 등 호젓한 바다 산책 코스로는 그만이다.

### 〈먹거리〉

▲수일식당= '불자의 집'으로 약천사 신도들이 적극 추천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복죽과 오분재기 떡배기, 성계국, 갈치국, 고등어 및 갈치조림, 물회 등 제주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다. 064-762-0777

### 〈목욕 곳〉

약천사 신도인 길상화 대표가 운영하는 서건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서건도 게스트하우스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한달에 10차례에 걸쳐 앞바다가 갈라지는 서건도가 있어 유명하다. 064-739-8012, 010-6739-8012.

디자인 등록원

##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 북 용 두	(中)	41cm×21cm
		(小)	35cm×21cm
다기	다 기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향통	원 형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사 TEL 02)2004-8216